



대림절 셋째 주

# 기쁨 Joy

## 대림절 셋째 주 묵상 목차

14일 (주일)	마음에 새겨주시는 새 언약	.....38
15일 (월)	생명과 풍성한 삶	.....40
16일 (화)	낮아짐으로 높아지심	.....42
17일 (수)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구원	.....44
18일 (목)	성탄: 선교의 모델	.....46
19일 (금)	성탄: 두려움에서의 해방	.....48
20일 (토)	성탄절 파업: 죄의 생산라인 중단	.....50





12월 14일(주일)

## 마음에 새겨주시는 새 언약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의 피, 즉 “언약의 피”(눅 22:20, 히 13:20)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를 위해 최종적이고 결정적으로 확보하셨고 확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신다는 다 좋은 언약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변화를 이루시는 방식은 믿음, 곧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요약하면,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값 주고 사신 바 되었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실현되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히13:20-21)

여기서 “그 앞에 기쁘시게 하시는 것을 우리 안에 이루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약속에 따라 우리 마음에 율법을 새기시는 실제적 변화를 묘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은 바로 이 영광스러운 주권적 은혜의 사역을 수행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의미는 단지 하나님께서 그림자를 실제로 바꾸신 정도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실체가 그의 백성에게 실체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십니다.

하나님은 성탄의 선물인 구원과 변화를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 놓아두고 우리가 스스로 집어 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 선물을 친히 들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넣어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하는 확신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십니다.



12월 14일(주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히브리서 8장 6절



12월 15일(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12월 15일(월)

## 생명과 풍성한 삶

**우**리 교회에 올해 많은 교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가족과 친구를 잃은 분들은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으며 그 빈자리를 더 크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또 명절이 가까와올수록 고국을 떠나온 우리들 대부분은 고향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을 더 느끼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족이 모처럼 모일 때는 귀향의 기쁨을 크게 만끽하게 되겠지요.

이와 같은 상실감이나 그리움, 함께 함으로 커지는 기쁨의 정서등은 어찌면 우리 모두가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결국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간다는 사실에서 기인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러한 정서를 외면하지는 말되, 부정적인 감정에 나 자신을 방치하거나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완전하고 영원한 만족을 대신해 버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아픔과 기쁨은 우리 마음을 더욱 본향을 사모하도록 이끄는 표지판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오신 목적, 곧 성탄의 의미를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 10:10)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단순히 육신적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와 죽음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아울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심은 우리가 사는 지금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이 풍성함은 단지 많은 소유나 편안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흐트러진 마음의 회복, 상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확신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샘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깊이 들이마심으로 지금을 삶도 더 풍성하고 깊게 누립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님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와 계십니다.



12월 16일(화)

## 낮아짐으로 높아지심

**성**탄절은 전략적 승리를 위해 전술적 퇴각을 행하신 하나님의 가장 성공적인 일보 후퇴 작전입니다. 겉으로는 명백한 패배처럼 보이는 상황을 통해 오히려 가장 위대한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일보후퇴 작전의 예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통해 영광과 권세를 약속하셨습니다(창 37:5-11). 그러나 요셉이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의 길은 전혀 영광스럽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아 노예가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제들을 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꿈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방법을 그의 아들을 통해서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종보다 더 낮은 자리인 죄수의 신분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모든 고난 속에서도 인내와 순종을 지키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빌 2:9-10)

하나님은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자리로 올리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약속받았지만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롬 8:17). 비록 사탄이나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해하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창 50:20)이심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어찌면 지금 내 위에 덮힌 검은 구름은 실상은 큰 공황을 가득 머금은 구름으로 때가 되면 내 머리 위에 은혜의 소낙비가 되어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You fearful saints fresh courage take  
The clouds you so much dread  
Are big with mercy and will break  
In blessings on your head.

- William Cowper, "God Moves in a Mysterious Way," 1773



12월 16일(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9-11절



12월 17일(수)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1장 31, 34절



12월 17일(수)

##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구원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된 인간이 스스로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전적으로 다른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커다란 장벽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맞는 우리가 먼저 마주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이 문제의 해답을 예수님이 오시기 약 500년 전, 예레미야 31장에서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 구약의 그림자들을 실체로 완성하시고, 자신의 뜻을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성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의 아들에게 담당시키시고, 아들 안에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히 9:28)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벧전 2:24).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롬 8:3) 죄값은 완전히 치러졌습니다(롬 8:1). 그 결과 우리의 죄는 사함 받았고(행 10:43),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정죄의 근거로 삼지 않으시며 “기억하지 않으시는” 복이 임했습니다(렘 31:34).

바로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신 존재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구원받은 자는 그분을 가장 큰 기쁨으로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새겨 주셔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과 자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따를 수 있는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가장 위대한 구원이자,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놀라운 선물입니다.



12월 18일(목)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요한복음 17장 18절



12월 18일(목)

## 성탄: 선교의 모델

예수님의 성육신은 선교의 모델입니다. 선교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이땅에 오신 성탄 정신의 반영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영접받지 못하셨고 음모와 누명, 조롱과 채찍질, 그리고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궁핍을 겪으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성탄은 위험을 향해 내딛으신 그리스도의 발걸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그리하라”

16세기 가톨릭 선교사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는 중국 선교를 준비하며 말라카의 페레즈 신부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위험 중 가장 큰 위험은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악한 영이나 그 수하의 인간이라도 우리를 조금도 해칠 수 없습니다.”

선교 중 직면하는 가장 큰 위험은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불신의 위험입니다. 이 위험만 피하면 다른 모든 위험은 그 힘을 잃을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는 해당되지 않는 위험이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그리하라”

이 대림절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이 선교의 참된 모델이 됨을 다시금 기억해야하겠습니다. 모든 선교에는 위험이 따르지만 그 중 가장 큰 위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고 순종하면 그 무엇도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12월 19일(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히브리서 2장 14-15절



12월 19일(금)

## 성탄: 두려움에서의 해방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인간을 넘어서는 존재의 죽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인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스스로 죽음으로 향하는 길에 서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억지로 죽음의 위험을 무릅쓴 것이 아니라, 기꺼이 선택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막 10:45)

사탄은 광야의 시험(마 4:1-11)과 베드로의 말(마 16:21-23)등으로 예수님을 유혹하여 십자가로 가는 길에서 이탈시키려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사탄 자신을 무력하게 만드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죽음의 세력(히 2:14)을 통해 사람들을 죽음의 공포에 묶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의 정죄에도 흔들리지 않는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에, 사탄은 더 이상 주님을 믿는 우리를 정죄하거나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사탄의 반역은 실패했고, 십자가로 인해 죽음의 화살은 더 이상 우리를 향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셨고,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셨습니다. 그 결과 죽음의 세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 우리는 해 아래 어떤 위험도 감수할 자유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더 이상 근심과 두려움에 얽매이지 말고 그 자유로 하나님과 사람을 맘껏 섬기고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12월 20일(토)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나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요한복음 18장 37절



12월 20일(토)

## 성탄절 파업: 죄 생산라인 중단

**사**탄의 생산라인에서는 매일 수많은 죄가 쏟아져 나옵니다. 사탄은 그 죄들을 거대한 화물 수송기에 실어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고는 비웃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공장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일을 그만두었다가도 가끔 돌아가곤 합니다. 그곳에서의 모든 작업은 하나님을 비웃는 일에 불과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빛과 아름다움과 순결과 영광을 미워하기에, 우리가 죄를 짓도록 하는 일에 온 힘을 쏟습니다. 피조물을 창조주를 불신하고 불순종할 때 사탄은 가장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도 좋은 소식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딤후1:15).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요일 3:8).

예수님은 사탄의 생산 공장에 ‘파업’을 일으키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공장 한가운데로 들어가 신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즉시 전면적인 작업 중단을 선포하셨습니다. 성탄절은 바로 이 부르심입니다. 더 이상 죄를 생산하는 라인에서 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이 파업에는 협상도, 타협도 없습니다. 오직 죄의 생산을 단호히 거부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폭력으로 맞서지 않지만, 진리에 대한 헌신으로 마귀 공장의 파괴성을 드러내고, 그 화물 수송기가 더 이상 이륙하지 못하도록 삶으로 지지하면서 죄의 공장이 완전히 문을 닫을 때까지 파업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께 드릴 선물을 찾고 있다면, 죄의 생산라인에서 과감히 떠나 다시 돌아가지 마십시오. 사랑의 시위대 안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의인들의 찬송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도록 성탄절 파업에 참여하십시오.

# OKCC 2025 대림절 묵상 (셋째 주)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p>30 첫째 주일 <b>소망</b> 성찬식</p>  <p>● 요(Jn) 17:24 그의 영광, 그의 기쁨 <i>His Glory, His Joy</i></p>	<p>1</p>  <p>● 눅(Lk) 1:16-17 주의 길을 예비하라 <i>Prepare the Way</i></p>	<p>2</p> <p>● 눅(Lk) 1:46-55 마리아의 위대하신 하나님 <i>Mary's Magnificent God</i></p>	<p>3</p> <p>● 눅(Lk) 1:68-71 마침내 찾아오심 <i>The Long-Awaited Visitation</i></p>	<p>4</p> <p>● 눅(Lk) 2:1-5 지금까지 작은 주의 백성들을 위해 <i>For God's Little People</i></p>	<p>5</p>  <p>바후림금요기도회</p> <p>● 눅(Lk) 2:6-7 갈보리를 향하여 <i>No Detour from Calvary</i></p>	<p>6</p> <p>● 눅(Lk) 2:12-14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i>Peace to Those with Whom He's Pleased</i></p>
<p>7 둘째 주일 <b>평화</b></p>  <p>● 마(Matt) 2:1-2 동방의 박사에게도 메시아되심 <i>Messiah for the Magi</i></p>	<p>8</p> <p>● 마(Matt) 2:2 베들레헴의 별 <i>Bethlehem's Supernatural Star</i></p>	<p>9</p> <p>● 마(Matt) 2:3-8 두 부류의 반대자 <i>Two Kinds of Opposition to Jesus</i></p>	<p>10</p>  <p>● 마(Matt) 2:9-11 황금과 유향과 몰약 <i>Gold, Frankincense, and Myrrh</i></p>	<p>11</p> <p>● 히(Heb) 2:14-15 예수님이 오신 이유 <i>Why Jesus Came</i></p>	<p>12</p> <p>● 히(Heb) 8:1-2 그림자에서 실제로 <i>Replacing the Shadows</i></p>	<p>13</p> <p>● 히(Heb) 8:1-2, 5 궁극적인 실체 <i>The Final Reality Is Here</i></p>
<p>14 셋째 주일 <b>기쁨</b></p>  <p>● 히(Heb) 8:6 마음에 새겨주시는 새 언약 <i>Making It Real for His People</i></p>	<p>15</p> <p>● 요(Jn) 10:10 생명과 풍성한 삶 <i>Life and Death at Christmas</i></p>	<p>16</p> <p>● 빌(Phil) 2:9-11 낮아짐으로 높아지심 <i>God's Most Successful Setback</i></p>	<p>17</p> <p>● 렘(Rem) 31:31-34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구원 <i>The Greatest Salvation Imaginable</i></p>	<p>18</p> <p>● 요(Jn) 17:18 성탄: 선교의 모델 <i>The Christmas Model for Missions</i></p>	<p>19</p>  <p>금요기도회</p> <p>● 히(Heb) 2:14-15 성탄: 두려움에서의 해방 <i>Christmas Is for Freedom</i></p>	<p>20</p> <p>● 요일(1Jn) 3:8 성탄절 파업: 죄생산라인 중단 <i>Christmas Solidarity</i></p>
<p>21 넷째 주일 <b>사랑</b> 유아세례식</p>  <p>● 요(Jn) 18:37 태초부터 계신 이의 탄생 <i>The Birth of the Ancient of Days</i></p>	<p>22</p>  <p>● 요(Jn) 20:30-31 믿게 하려 함이요 <i>That You May Believe</i></p>	<p>23</p> <p>● 롬(Rom) 5:10-11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의 선물 <i>God's Indescribable Gift</i></p>	<p>24</p> <p>● 요일(1Jn) 3:7-8 나타나셨다! <i>The Son of God Appeared</i></p>	<p>25</p>  <p>성탄절 예배</p> <p>● 요일(1Jn) 3:7-24 크리스마스 선물 <i>Christmas Presents</i></p>		

